



해경·국리수 합동감식반이 2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정박한 좌초 사고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를 육안 조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 “세월호때와 달랐다”... 서해청·목포해경 여객선 구조작전

불빛 하나 찾아 볼 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망망대해. 탑승객 267명이 승선한 여객선이 좌초 됐으나 해경의 일사분란한 구조작전으로 전원 무사 구조됐다.

구조 당국 간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구조작전도 실패했던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달리 해경의 신속한 대처로 탑승객 모두 육지로 생환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2만6000t급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에 탑승한 승객 267명은 당혹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여객선이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 갑자기 ‘쿵’하는 굉음을 내며 무인도에 좌초했기 때문이다.

여객선 내부는 쓰러진 승객과 물건들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됐고,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소환됐다.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즉시 합정 총동원령을 내렸다. 해경합정은 12분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여객선 탑승객 267명 전원 무사 육지 이송  
 현장지휘·승객안내·유관기관 협업 등 ‘3박자’  
 선내 진입·승객 구조 실패한 세월호와 대비

이해 해경은 경비함정 17척,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까지 일사분란하게 현장으로 급파했다.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9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때와는 대비되는 해경의 초동 대응이었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당시 오전 9시25분부터 45분 사이 해경 123정과 구조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선체가 50도까지 기울어 가는 동안 세월호와의 통신 교신은 시도하지 않았고 선내 진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침몰 당일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172명만 구조됐고, 단원과 학생 등 304명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전날 신안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다수의 승객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관계자들은 곧바로 선내로 진입해 탑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신속히 안내한 뒤 승객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계획을 세웠다.

선미랩프를 이용해 소형정 여러 척이 소수의 승객을 태워 큰 함정으로 릴레이

이송하는 창의적인 방법까지 실행했다.

지자체와 군, 소방, 경찰, 해양수산청까지 유관기관도 바다와 육지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상황에 대처했다.

승객 구조부터, 육지 수송, 환자 병원 이송, 임시숙소 배정까지 기관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재난 대응훈련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구조를 기다리며 애타게 태워던 승객 267명은 사고 발생 3시간10분만에 육지에 발을 내딛으며 안도의 한숨의 내쉬었다.

이번 여객선 좌초 충격으로 임시부위를 비롯해 승객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대다수가 퇴원하고 3명이 입원 중이다. 임신부 역시 검사를 받고 퇴원했다.

해경은 퀴제누비아2호 선장과 일등항해사, 조타수 등을 종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하거나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기동취재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서울에서 광주 민간·공공합 통합이전 현안 논의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광주 민·軍 공항 통합 이전... 남은 과제는 대통령실 중재로 4차 협의 ‘큰 틀 합의’... 연내 빅딜 성사 기대감 기부대양어·정부 지원·중전부지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산적 패키지 이전 전략·주민수용성·무안공항 재개 등도 성패 가를 듯

10년 간 담보 상태였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이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한 4차 사전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이제 관심은 연내 최종 타결 여부와 중전부지 개발, 주민투표 등으로 쏠리고 있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 정부 재정 지원 범위, ‘민항 따로·군항 따로’가 아닌 패키지 이전 전략의 명확한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전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으로 4차 협의를 갖고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구체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민간공항 선이전에는 공공항 연계 이전을 포함하고, 광주시 지원금 1조 원 가운데 3000억 원은 정부 보조를 전제로 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취지 아래 국가 인센티브로는 첨단 국가산단 조성 등 기업 유치에 제시했다.

후속 논의와 더불어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차 TF의 연내 출범 가능성도 제시됐다. 공항 이전 논의가 국가 주도 급물살을 타며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간·군

공항이 60여 년 만에 ‘송정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연내 의미 있는 빅딜 성사 여부다. 후속 협의가 급진전될 경우 연내 최종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통합 이전이라는 큰 틀 뿐 아니라 세부 항목들이 어느 수준까지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하이웨이 협상’의 분수령인 셈이다. 기부대양어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핵심 과제다. 기부대양어는 광주시가 새 공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공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이전사업 총사업비는 5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새 공공항 건설비 4조 791억 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최소 4500억 원, 중전부지 개발비 8356억 원, 금융비용 3825억 원 등이다. 그러나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7조 원을 넘어 10조 원까지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총사업비 재산정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공적자금 활용, 금융비용 지원 등을 통해 3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